

캐터필라 G3500 가스엔진 열병합 시스템

· 열병합 시스템의 장점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80~90%)
환경친화적 시스템 (국내 배출가스 기준 만족)
낮은 유지보수비용

· 적용분야

주거시설, 호텔, 병원, 복합건물, 상업용빌딩,
집단 에너지 공급용

가스엔진 열병합 시스템이란?

가스엔진 열병합 발전시스템은 가스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전력과 열원(냉방·난방·온수)을 동시에 생산 가능한 고효율 중합에너지 시스템입니다.



2006 | SUMMER |

혜인



자유

Special Theme

진정한 나를 찾는 힘

아무도, 무엇도

대신 채울 수 없는 날 것의 기쁨, 자유

너를 갖고 싶다

너를 느끼고 싶다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젖어든 내게

펼떡이는 자유의 바람을 주고 싶다

그

리

하

여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

Contents

Theme@haein ... 03 프롤로그 | 04 Theme Essay | 06 Theme Space

Family@haein ... 10 Haein Manpower | 12 Haein Utopia | 14 People & People

16 트렌드 돋보기 | 20 최고의 장비

Human@haein ... 22 Info Prism | 24 해인 뉴스 | 26 비교체험 극과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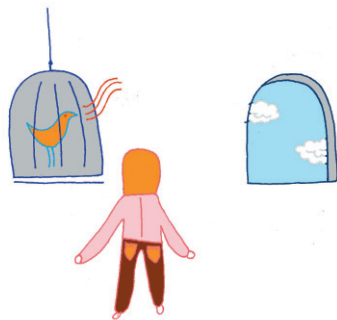
표지 설명 : 캐터필라 장비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해인 박송일 차장과 대동광업 정영덕 차장.

2006년 여름호(통권 252호) | 2006년 6월 29일 발행 |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 바-2006호) | 발행 겸 편집인 원경희 | 발행처 주식회사 해인 (www.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해인빌딩(02-3498-4500) | 기획 및 디자인 편집 디자인실 외곽(02-3447-7601) |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사람들은 늘 자유를 꿈꾼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이 빚어내는 예술작품을 생산해내기도 했다. 자유는 바로 발전을 향한 첫 걸음이며, 동기이며 추진력이다.

글 / 송효순(자유기고가), 일러스트 / 유창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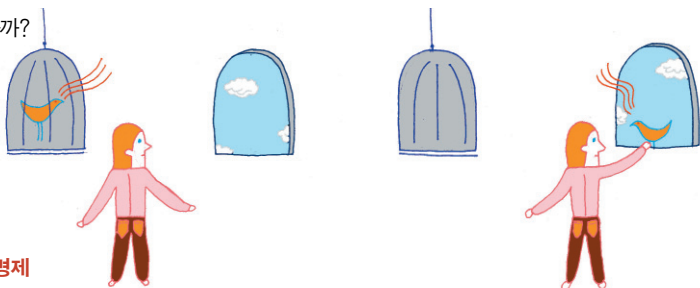
도전과 관용의 다른 이름 '자유'



권위로부터의 해방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이는 사전적으로 풀어본 자유의 의미이다. 물론 이 정의는 자유라는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창세기 신화의 인물들에게는 가장 적당한 의미일 수도 있겠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파계는 인류의 원죄로 취급된다. 에덴동산의 풍요를 버림으로써 그들이 얻은 것은 물론 고생스러운 삶이었다. 하지만 밭을 갈고 베를 짜는 노동을 통해 인간은 세상을 자기 손으로 가꾸기 시작했으며, 출산을 통해 생명 창조 주체가 될 자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니, 창세기의 범죄로 그들은 단순한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자 인간 선언의 역사적 쾌거를 이룩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인류 최초의 자유는 바로 신으로 상징되는 절대 권위로부터의 해방은 아니었을까?



도전과 부정정신은 자유의 근본 명제

그렇다. 무릇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저마다 자기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야만 한다. 타인이 제안하고 제한한 안락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야만 한다. 봉건제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일으킨 프랑스 혁명처럼, 미국의 독립전쟁처럼... 도전과 부정정신은 자유의 근본 명제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의 고통이다. 그러나 인간은 고통 없이 성숙할 수 없다. 고통은 규칙을 어기며 감히 대든 자만이 누리는, 고통스럽지만 성스러운 인간적 징표이다. 신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나 새로이 신의 자리에 오른 인간의 거만한 율법인 노예 제도에 저항한 스파르타쿠스, 인종 차별 철폐를 주장하다 살해된 마틴 루터 킹, 사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양심의 신념아래 한 장의 전향서 쓰기를 거부하여 일생을 수인으로 사는 비전향 장기수 그리고 예수, 붓다, 테레사 수녀, 파울 첼란, 이들은 모두 자유의 자식이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존중한다.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들의 자유정신

예술의 경우는 어떠한가. 알려져 있다시피 모차르트는 음악사의 페이지를 바꾼 천재이다. 그러나 네 살 꼬마 신동시절부터 요절하기까지의 짧은 세월동안 깊고 탁월하게 선보인 작곡 능력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음악 세계가 지향하는 소통의 방향이다. 그는 왕을 위한 궁정 음악에 충실한 대신 개인적 감흥을 위해, 재미 자체를 위해 음악을 즐겼고 마침내 일반 대중을 위한 연주와, 위탁 작곡 및 판매로서 음악을 '제작' 하기도 하였다. 궁정음악가 살리에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모차르트에게 천재성을 내린 하느님의 심증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꿈꾸며 새로운 공기를 호흡하려 애쓰는 자의 자유 의지였던 것이다.

회화사의 챕터를 바꾼 자유 영혼이라면 단연 피카소를 들 수 있다. 입체파, 아수파의 선구자인 그의 전방위적 다중시점 화면은 르네상스 이래로 확고하게 굳어져 온 '원근법'에 대한 미학적 정치적 도전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고 머리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렸다'고 피카소는 말했다. 눈 코 입이 여러 개로 겹치거나 제자리를 찾지 않고 있는 화폭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의 개방적 의미를 설파한 것이다. 피카소의 예술 세계는 오랜 관습을 깨뜨린 자유정신의 표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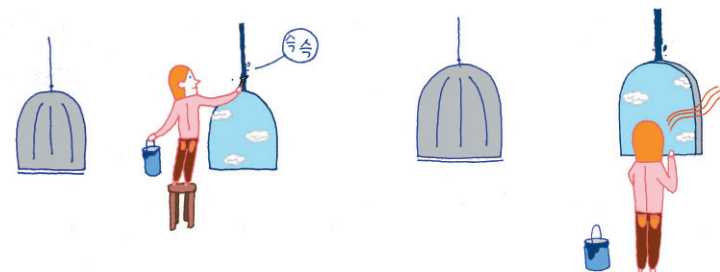
정신의 모험을 수용하는 관용적 태도, 자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은 선물로 받은 난초에 집착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에게 주고서야 홀가분해졌다고 한다. 예수나 붓다의 경우도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버리는 무소유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러면 자유는 무조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인가. 물론 그럴 리 없다. 여기서 자유란, 추구하는 순간의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즉, 사유 재산이나 지적 축적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간혀있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당연히 알을 깨지 않고 새는 세상으로 나올 수 없다.

거창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자유는 높고 거대한 곳에 위치하여 우리가 악전고투 끝에 손에 넣어야 하는 사물이 아니라 발견과 해체의 과정이다. 또한 무모해 보이는 정신의 모험을 웃으며 수용하는 관용적 태도의 다른 이름이다.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꿔보려는 다양한 노력을 자유의 깃발 아래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고민하는 당신! 떠나라!





상상의 자유를 실현하는 비상구



홍대 앞은 오리보트다. 왜? 미친 듯이 달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홍대 앞은 화장실이다. 왜? 해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상상의 자유, 자유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곳이 홍대 앞 풍경이다.

글과 사진 / P.A.S(i-pas@hanmail.net)

천태만상, 홍대 앞이 사랑스럽다

런던의 소호나 미국의 브루클린 정도로 비유되는 홍대 앞거리를 거닐다 보면 비어 있는 공간을 볼 수 없다. 골목을 거닐 다기도 수시로 만나게 되는 조형물들이나 벽들은 온통 자유 예술인들의 그래피티로 채워져 있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디에' 그리느냐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듯싶다.

단 한 평의 공간만 있어도 직접 제작한 수제품을 행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펼친 자판들로 촘촘하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프리마켓은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은 시장이다. 이곳에서는 어느 가게에서 파는 판에 박힌 물품이 아닌 사람 손으로 엮은 '단 하나'의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과 그런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만난다. 시장이긴 하지만 이곳을 둘러보면 팔기보다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해줄 때 그들의 표정이 한결 밝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상인이 아니라 작가(Artist)라고 부른다.

카페와 주점, 예쁜 액세서리 가게 등 넘쳐나는 것이 화려한 아이템들이지만 홍대 앞 문화의 뿌리는 바로 자유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굶적이며 그린 그림들을 팔 수 있는 곳, 하루 한 번 공연을 위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다리는 인디 밴드들, 화장실 벽에라도 그림을 그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림쟁이 등은 모두가 홍대 앞이기에 가능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넘쳐나는 홍대 앞에는 만끽하기에 충분한 자유로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이다.

틀리다와 다르다

열 명에게 홍대 앞에 대해 물어보면 열한 가지 대답이 나올 지도 모를 일이다. 그 누가 하나를 더 이야기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상상 그 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는 것만큼만 나온다. 그런데 그 상상의 범위를 누구도, 때론 본인조차도 가늠하지 못하기에 홍대 앞에서 우리는 예측불허의 '다른,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한 달변가는 자유로 대변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두 가지 갈채를 보낸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는 그것이 다양성을 용인



하기 때문이요, 하나는 비판을 허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목표, 어떤 희망을 품고 나왔던 그들은 틀린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삶에는 나이도, 국적도, 성별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유를 찾는 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 하지만 멈춰서 있어서는 단 한 뼘의 자유도 얻을 수 없는 곳, 홍대 앞의 오리보트다.



자연과 함께 크는 자유로운 아이들



벽돌을 찍어내듯 가르치는 교육의 틈을 깨고 스스로 '나'를 찾아 자연으로 돌아간 아이들. 이곳에서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 파란 자유를 담은 하늘 밑에서 맨발로 땅을 지치며 알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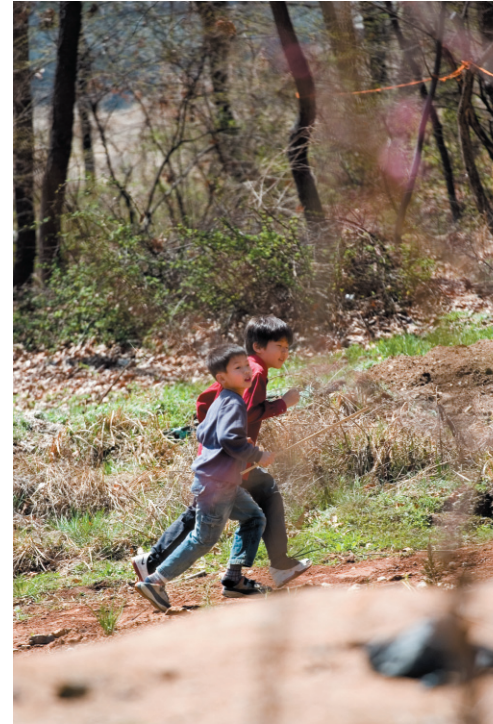
글과 사진 / P.A.S(i-pas@hanmail.net)

알려주기보다 알아가는 곳

고대 문서에 따르면 성인(聖人)이 세상에 나올 전조(前兆)로 나타난다는 상상의 동물로 표현되어 있는 기린. 기린배움터는 초식동물이면서 큰 키로 가장 멀리 내다보며, 자신보다 약한 동물에게는 전혀 해를 가하지 않고 큰 심장을 가져 늘 마음이 따뜻한 기린의 이름을 본떠 만들었다. 경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자라는 요즘 아이들처럼 크지 않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며 여유롭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다.

아홉 가구 열다섯 명의 아이를 자식처럼 품고 자연 속에서 자그마한 학교, 기린배움터의 문을 연 호응수 교장을 찾아갔을 때 그의 허리춤에는 각종 연장들이 매달려 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목수의 모습이었다. 학교 건물이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수업이 없는 시간 틈틈이 집안 구석구석을 손보는 중이다.

"이곳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생활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나 학부모



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말하는 법, 어울려 사는 법 등을 함께 생활해가며 자연스럽게 알아가도록 합니다.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이 아이들에게 갖춰지면 그 후에 학습은 아이들의 관심도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일부러 알려주기보다는 아이들은 푸른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걷고 뛰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알아간다. 도시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밥 먹고 나서 졸리니까 한 시간만 더 놀아요."

아이들의 이 한 마디 덕에 기린배움터의 점심시간은 30분이 더 늘었다. 억지로 책상에 앉혀 놓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숲이나 개울에서 30분을 더 놀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누군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 서로가 토론하는 절차를 거쳐 늘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한 학기를 같은 시간표로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매번 아이들 의견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조율해 가장 최선의 해답을 찾아낸다. 호응수 교장은 제멋대로가 아닌 자율

성 속에서 책임감을 키우는 행동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린배움터는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다. 이제 겨우 텃밭 하나를 찾아낸 셈이다. 그곳을 일구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몇 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부지런한 농부는 언젠가 굵고 알찬 열매를 맺는다. 기린배움터에서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알찬 기운, 자유로운 숨결을 느껴본다.





열정으로 빛은 팀워크

팀워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리고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다. 누구보다 그때를 잘 아는 해인 전주지점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빛내내는 그들의 팀워크 비결을 들어보았다.



- 전라북도와 충남 서천 지역을 담당하는 전주지점은 용담댐 건설현장, 옹포 골프장, 새만금 물막이공사 등 굵직한 공사 현장에 캐터필라 장비를 납품한 내실 있는 지점. 김인기 지점장의 지휘로 장비영업을 담당하는 장석의 소장, 김대영 소장, 기술서비스를 담당하는 김상귀 사우, 홍성구 사우, 부품영업을 담당하는 김태형 사우, 김정화 사우로 구성되어 일당백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저희 지점의 자랑은 무엇보다 장비영업, 부품영업, 기술서비스의 협조가 잘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건설장비는 판매하고 난 후에 기술서비스가 철저해야 하잖아요. 만약 제대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객의 불만은 쌓이게 되고 추후에 영업이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저희 지점은 장비영업, 부품영업, 기술서비스의 협조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어 고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점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조, 그게 전주지점의 제일 큰 자랑거리입니다.”

김인기 지점장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팀원들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 보였다.

전주지점은 고객에게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영업사원이 기술서비스 직원과 함께 현장에 간다. 그래서 기술서비스 직원이 어떤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부품 파트에 연락을 해서 부품을 수급하고 만약 지점 내에 부품이 없을 경우 다른 지점으로 연락해서 부품을 수급한다.

“건설장비는 영업도 영업이지만 판매 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설장비들이 워낙 고가니까 고객의 기대치가 높은 상태고요. 건설장비가 서 있으면 고객들이 그 시간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시간에 장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는 거지요.”

이를 위해 전주지점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도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가급적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노력한다. 휴일에도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



면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직원이 달려갈 수 있도록 직원들끼리 항상 연락을 취한다고.

“휴일까지 근무하는 거, 사실 피곤하기는 하죠. 하지만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나서 고객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그 피로가 날아가 버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잊지 않고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전주지점을 소개해 줄 때 열심히 일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김대영 소장의 말에서 여한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올곧은 삶의 자세가 느껴졌다. 그리고 진솔하게 고객에게 서비스 하는 것이 언젠가는 해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김인기 지점장의 마지막 말에서 입증되었다.

“이 말은 한 고객에게 들은 말인데요. 금요일 오후에 장비가 고장났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지점이 쉬니까, 수리 작업을 월요일부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몇 시간 만에 장비를 수리했다고. 그때 참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전주지점의 팀워크가 빛나는 결실로 반짝이는 듯했다.

기운을 북돋는 ‘우리는 친구’

해인 부산영업본부 박송일 차장과 대동광업의 정영덕 차장은 캐터필라 장비가 인연을 맺어준 사이. 낯가림을 울리는 캐터필라 장비 소리가 이제는 더 없이 즐거운 노랫소리로 들린다는 두 사람의 화음을 들어보았다.



- 경남 양산 덕계에 위치한 대동광업의
- 채석 현장은 캐터필라 장비들이 내는
굉음 소리로 가득했다.

“대략 14만평 정도 되는 대동광업의 채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에는 15톤 덤프트럭만 14대를 운행했는데, 캐터필라 장비를 사용하면서부터 인원과 장비가 대폭 감소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현재 대동광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터필라 장비는 245B, 365BL, 375L 등의 굴삭기와 980C 휠로더, 덤프트럭인 769C, 769D 그리고 불도저인 D11N과 D11R과 같은 대형장비들이다. 대동광업이 해인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7년 휠로더 966E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인의 캐터필라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석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장비들이 계속 고장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캐터필라 장비는 10년 이상을 사용해도 별다른 고장이나 사고 없이 대동광업의 현장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대동광업은 자연스럽게 캐터필라 마니아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캐터필라 장비가 대동광업의 소중한 가족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해인 부산영업본부 박송일 차장의 노력이 있었다.

“대동광업은 현장 내 거의 모든 장비를 캐터필라 장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인과 대동광업은 친구 같은 회사입니다.”

대동광업의 정영덕 차장 역시 “강산이 두 번 변할 정도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말이 필요 없는 사이입니다. 앞으로도 대동광업이 일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캐터필라 장비가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서로에 대한 든든한 믿음으로 어깨를 맞잡는 정영덕 차장과 박송일 차장의 모습이 앞으로 함께 발전해갈 대동광업과 해인의 모습 같아 마음이 든든해졌다.

글 / 이원복, 사진 / 김호근

신뢰가 이뤄낸 새로운 쾌거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듯 진지했다가 금세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는 성신양회의 안태욱 과장과 헤인의 고흥길 팀장. 문제운 지점장은 캐터필라가 인연을 맺어준 사이다. 오랜 시간 알아온 듯 친근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곳은 성신양회 단양공장.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석하는 현장이다. 석회석을 채석하고 그것을 잘게 자르는 과정을 반복하는 단양공장에서 힘 좋은 덤프트럭, 굴삭기는 빛나는 효과들. 이곳에서 안태욱 과장은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캐터필라 장비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성신양회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률이 적고 내구성이 좋다는 건 이미 검증되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입사한 후에도 캐터필라 장비는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태욱 과장의 말대로 단양공장에서는 덤프트럭 7대, 휠로더 2대, 불도저 4대, 굴삭기 2대 등 모두 13대의 캐터필라 장비가 단양공장을 누비며 가동 중이었다.

“안태욱 과장님은 기사들보다 장비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보통 관리직일 경우, 장비를 다루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안 과장님은 모든 장비를 다룰 줄 알아요. 장비를 다룰 줄 아니까 장비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헤인 제천지점 문제운 지점장의 설명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장비에 대한 안태

욱 과장의 해박한 지식은 지난 해 헤인이 딜러십 계약을 맺은 O&K 장비를 6월에 구입한 것에서 입증된다. 원래 O&K 장비는 광산 작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 돌이나 광석을 상차하는 장비이니 힘 좋고 내구성이 좋은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 수입한 O&K RH40-F는 힘이 아주 좋은 장비입니다. 단양공장의 작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모로 좋은 장비를 알아본 후 구입했습니다.”

안태욱 과장은 O&K 장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헤인 산업장비영업팀 고흥길 팀장과 함께 장비 검수차 독일 도르트문트에 다녀왔다.

“사실 O&K 본사가 독일에 있어서 A/S나 부품 수급이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캐터필라장비를 판매하는 헤인이기에 믿고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캐터필라 장비의 기술 서비스를 보면서 헤인의 성실함은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 과장의 기대대로 O&K 장비는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내구성이 좋고 안전하기에 무엇보다 믿을 수 있어 안심이라고 한다.

“장비는 무엇보다 튼튼한 내구성과 함께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캐터필라나 O&K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우수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안태욱 과장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다른 현장에서 힘차게 가동될 O&K의 모습이 기대되었다.

글 / 손완주, 사진 / 김학리



신 · 재생에너지의 전망과 동향

미래 에너지의 흐름은 석유로 시작한 현재의 화석연료시대에서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자연순환계에 순응하는 신 · 재생 에너지시대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관심이 늘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의 전망과 동향을 알아본다.

글 / 강용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세계적인 흐름이 된 신 · 재생에너지 개발

신 ·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국내에 도입된 이래 대체에너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 보급 촉진 법>이 2004년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 법>으로 개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였고,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 분야이고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로 현재 총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수소 ·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기술은 IT, BT를 넘어서는 거대한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 세계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수소 · 연료전지 1천억불(메모리반도체시장은 468억불), 태양 전지 300억불, 풍력 340억불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수소 · 연료전지분야의 세계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03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수소 · 연료전지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총 17억달러를 수소 · 연료전지의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정부 주도로 Ballard(연료전지), Dynetek(수소저장용기), Fuel Cell Tech(시험장비) 등 분야별 세계 최고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하이웨이, 수소마을 건설 등 정부 · 기업 공동의 h2EA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경제 조기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태양광분야 세계 주도권 유지를 위해 2010년까지 원전(1,000MW급) 약 5기에 해당하는 4,820MW의 태양광설비를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설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자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수요에 맞춰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EU는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총 에너지소비의 12%, 총 발전량의 22%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특히 독일은 풍력의 세계 누적 설치용량의 36%를 보급하는 등 각국이 신재생에너지의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1988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내 기술개발은 2002년 12월에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목표를 2006년에 3%, 2011년에 5%로 공급목표를 설정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술 중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분야의 핵심기술인 태양열 온수급탕기술, 독립형 태양광 발전기술, 폐기물소각 및 폐열회수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여 실용화 내지 상용화단계에 진입한 반면 수소 저장·이용기술 등은 기초·응용연구단계로 기술수준이 낮은 편이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구체적 조치로서 태양광, 풍력 발전 등 대체전력의 우대 구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그린 빌리지의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전략 아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2005년 말 기준, 총 1차 에너지소비의 2.2% 수준으로, 폐기물과 수력이 대부분(95.6%)으로 기술집약형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은 극히 미미한 실적이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구분	한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공급율(%)	2.2	12.7	6.2	4.3	3.7	3.5

* IEA 2004 자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구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태양열	풍력	태양광	지열	계
공급량(천toe)	3,479	1,311	145	34	37	4	4	5,013
공급비중(%)	69.4	26.2	2.9	0.7	0.7	0.05	0.05	100

에너지별 개발 추이

수소연료전지분야는 미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분야별 개발 및 보급을 본격화하여 연료전지 자동차분야에서는 승용차(80kW) 및 버스(200kW)용 연료전지 국산화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자동차 운행을 위한 수소하이웨이, 수소스테이션 등 실증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분야는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한 내수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태양전지는 실리콘을 원료로 한 대규모 장비산업으로 반도체산업과 유사하여 반도체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보급사업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만 뒷받침되면 수출전략 산업화가 가능하다. 내수시장 확대



신·재생에너지



를 위해 〈Solar Roof 2011〉프로젝트 추진(2012년 10만호 보급)을 통한 시장확대 및 저가화를 꾀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등 집단 주거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도 착수하였다.

풍력발전분야는 육상풍력단지 건설의 마무리 및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2MW급이 주력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육상 풍력단지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 바람 여건이 좋은 제주도, 강원도, 경북을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초기단계인 해상 풍력의 본격 개발 추진을 위해 3MW급 해상풍력발전기 기술개발 및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에도 착수하였다.

태양열과 지열분야는 시공기준 강화, 고장접수센터 운영 등 A/S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의무화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지열시장의 업체난립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기준 설정, 시공 확인제 및 사후보증제 등 보완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친화적 사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제도 중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주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정부(전력기금)가 5~15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차액지원 실시 후, 풍력 등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구매제, 의무할당제 도입 등 정책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운영중인 기준가격 현황〉

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조력
기준가격(원/kWh)	716.40	107.66	73.69	65.20	62.81

* 2005년 시장거래가격

또한, 지역별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 50호 규모의 분산전원 모델로 Green Village 조성, 해안가 어촌 등을 대상으로 '소형풍력단지(Wind Village)' 및 교육·홍보 및 연구·실증기능이 혼합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의 보급 프로그램이 개발, 추진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오염된 사회를 환경친화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대안이라는 국민의 공감대로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늘여가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능! 캐터필라 D시리즈 굴삭기

수년간 국내 각종 현장에서 압도적인 생산성과 차별화된 임대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캐터필라 C시리즈 굴삭기. 이제 혁신적으로 개선된 D시리즈 굴삭기로 그 전통을 이어간다. 캐터필라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D시리즈 굴삭기는 최상의 경제성, 생산성, 운전 및 정비편의성을 목표로 설계되어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파트너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한다.

글 / 장비마케팅팀 류광숙 과장(ksryu@hae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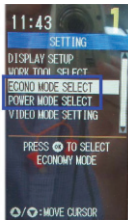
(1) ACERT Technology 기반의 최첨단 캐터필라 C7/C9 엔진장착

ACERT (Advanced Combustion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엔진은 최첨단 연료시스템을 이용, 배기가스를 감소시켜 환경보호규제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연소온도를 낮춤으로써 엔진구성품의 수명을 연장시켜 운영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연료소모율 대비 작업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게 합니다.

(2) 최적의 연료효율을 위한 RPM 모드 채택 (선택가능)

최적의 연료효율을 낼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RPM 모드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Standard Mode(최대 2,000 RPM)와 Economy Mode(최대 1,800 RPM)의 선택적 사용가능



모니터를 통한 Mode 선택



코노미모드 선택 시

이코노미모드시
형성되는 아이콘

◎ 1,800 RPM에서 최대의 엔진토크를 낼 수 있도록 설정

◎ 연료효율 최대 8%증가

(3) 신개념의 운전석 및 운전자 편의장치 장착

운전자중심의 신개념 캡 및 운전자 편의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안락한 작업공간을 제공합니다

◎ D-Series 칼라모니터 장착

◎ 에어 서스펜션시트 & 시트히타 장착 (기본사양)

◎ 고효율의 에어컨 장착



(4) 향상된 유압시스템 압력

증가된 유압시스템압(2% 증가)으로 버킷 및 스틱굴삭력이 향상됨으로써 각종 현장에서의 작업다양성과 효율성증가를 실현하였습니다.

(5) 신개념의 버킷링크지 (Power Link) 채택

증가된 유압시스템압에 적합한 링크지를 채택함으로써 구성품의 내구성을 대폭 향상 시켰습니다.

◎ 핀직경 증가

구분	PT 8	PT 10
324D / 325D	80 ⇒ 90MM	80 ⇒ 90MM
330D	90 ⇒ 100MM	80 ⇒ 90MM



◎ 링크지표면에 Lifting Eye (후크)장착

기존의 버킷표면이 아닌 링크지에 후크를 장착함으로써 인양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작업효율을 증대시켰습니다

(6) 업그레이드된 하부

구분	C 시리즈	D 시리즈	비고
	스트로크 (mm)		
322/324	50	57	+14%
325	50	64	+28%
330	52	65	+25%

◎ 트랙길이 증가 (325DL)

트래킹 2개(트래킹이 20CM증가)를 추가 장착하여 작업시의 안정성을 증대시켰습니다

(9) 기본 제원 비교

구분		324DL	325CL	325CL	330CL	330DL
운전중량	kg	25,560	28,500	29,240	34,700	35,020
버킷용량(SAE)	cum	1.2	1.3	1.3/1.5	1.6	1.6/1.9
엔진	제작사/모델	-	CAT / 3126B ATACC	CAT / C7 ACERT	CAT / C9 ATACC	CAT / C9 ACERT
	배기량	cc	7,200	7,200	8,800	8,800
	정격출력	hp	166	188	247	247
	회전수	rpm	1,800	1,800	1,800	1,800

◎ 스프링 리코일 시스템(Spring Recoil System)의 개선
스프링 리코일 시스템내의 스트로크의 증가로 화이널 드라이브와 아이들러의 파손을 최소화합니다.

(7) 증가된 정비주기

휠타 및 오일의 교체주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정비시간과 운영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 유압오일휠타 : 최장 2,000 시간 (⇨1,000 시간)

◎ 유압오일 : 기본 2,000 시간

· 정기적인 오일 샘플링 시(매 500시간) 최장 8,000시간(⇨4,000시간)까지 사용 가능

(8) 장비관리시스템 개선

◎ Product Link 장착(선택사양)

원격으로 장비의 진단, 문제점조사, 연료의 사용량, 장비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장비관리 시스템

색다른 재미가 솔솔~ 이색박물관

대부분 '박물관' 하면 먼저 고리타분한 느낌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책에서 볼 수 없었던, 호기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전시물로 가득한 이색박물관이라면 애기가 다르지 않을까? 여름방학과 휴가를 앞두고 아이와 어른,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박물관으로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자.

글 / 남영우(자유기고가)

로봇박물관

로봇박물관은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로봇박물관이다. 40여 개 나라 3,500여 점의 로봇이 꽂 들어차 있다.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그랜다이어 등 추억의 로봇을 비롯해 1900년대 초 독일에서 만든 양철 로봇 등 희귀 로봇도 감상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역시 로봇전시장.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로봇장난감인 양철로봇 탄탄부터, 1920년대 SF 영화 <메트로폴리스>에 출연한 마리아로봇, 1950년대 등장한 아톰, 1970년대를 풍미한 토종로봇 로봇트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등 어른 세대들도 흥미롭게 감상할 만한 로봇들이 가득하다. 이 밖에도 연대별로 로봇의 역사와 진화 과정이 쉽게 정리돼 있어 로봇의 발달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인간형 로봇인 로보사피엔을 마음껏 조종해 볼 수도 있다.



- 입장료 대인 8,000원
대학생 · 청소년 · 소인 5,000원
(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 02-741-8861
- 찾아가는 길 지하철 4호선 1번 출구
(동숭아트센터 대각선 맞은편)
- 홈페이지 www.robotmuseum.co.kr

별난물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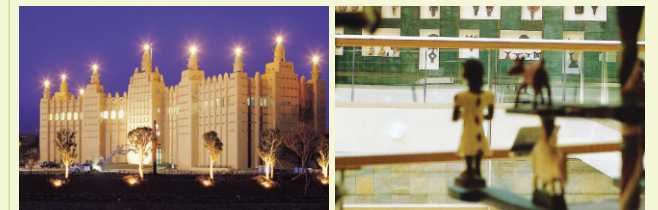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과 부산 해운대에 있는 별난물건박물관은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전 세계의 엉뚱한 물건들을 통해 과학적 원리와 창의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실은 소리, 빛, 과학, 움직임, 생활 등 다섯 가지 테마별로 구성돼 있으며, 관람객들이 신기한 과학 완구들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람의 박수소리나 음향 등에 반응해 물방울이 분수처럼 솟아 마치 수중발레를 하는 듯한 신기한 물방울 쇼를 보여주는 '물방울들의 수중 발레', 혼자서 등 뒤에 파스를 붙이기가 힘든 외로운 독신자들에게 유용한 도구, 거울의 반사각을 이용하면 사물의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원리를 이용해 반듯하게 누워 텔레비전이나 책을 볼 수 있는 '귀차니스트 안경'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전시품들이다.



- 입장료 대인 및 소인 8,000원
유아(36개월 이상) 7,000원
(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 02-792-8500
- 찾아가는 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12번 출구(도보 5분)
- 홈페이지 www.funique.com

아프리카박물관

사자와 기린 등이 뛰어 노는 신비의 땅인 아프리카는 우리들에게 꿈의 나라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제주도에도 옮겨 놓은 곳이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아프리카박물관이다. 건물 모양새부터 이색적이다. 온통 황토빛으로 칠해져 있으며 침탑을 잇따라 붙인 듯한 건물 모습에 '어디서 보았지?' 하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바로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서아프리카 말리 공화국의 젠네 대사원(이슬람 사원)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1층에는 사진작가 김중만 씨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찍었던 사진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에는 아프리카 전통 가면, 조각, 집 등이 있으며 매일 3차례 아프리카 전통 민속 공연이 열린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아프리카 전통 문양 페이스페인팅, 찰흙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입장료 어른 6,000원
아이 3,000원(연중무휴)
- 문의 064-738-6565
- 찾아가는 길 중문관광단지 입구 하차 후
택시 이용(기본요금)
- 홈페이지 www.africamuseum.or.kr



해상엔진 대리점 '고객지원 세미나' 실시



(주)헤인은 지난 3월 30일 한국선박기술협회(KST) 세미나실에서 KST와 공동으로 Caterpillar 관계자 및 (주)헤인의 해상 엔진 대리점인 (주)하영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지원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 관내 주요 기업의 선박 관리자를 대상으로, 디젤엔진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안내, (주)헤인 소개 및 Cat Engine 부품의 우수성을 설명하였으며,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서로간의 정보 공유 및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헤인은 향후 지속적인 '고객지원 세미나'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서울영업본부 영등포 이전



(주)헤인의 본사에 상주하던 서울영업본부가 한층 더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지난 5월 2일자로 영등포로 이전하여 장비영업, 부품영업 및 기술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 서울영업본부 체제로 확장이전 하였다. 금번 확장 이전을 통하여 (주)헤인은 향후 수도권 지역 고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변경 주소 및 전화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14

전화 : 영업 및 서비스 대표전화 : (02) 2634-4800 / 팩스 : (02) 2634-4813

부품 판매 대표전화 : (02) 2636-2891 / 팩스 : (02) 2636-2894

비산먼지 컨트롤러 Dust Boss 출시



(주)헤인은 작업장내의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작업환경의 질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산먼지 컨트롤러 Dust Boss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Dust Boss의 사용을 통하여 작업장 내의 노동력 절감과 사용하는 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헤인에서 판매하는 Dust Boss는 간단한 셋팅으로 작동되며, 직진 분사는 30m~60m까지, 분사면적은 154평~589평까지 분사 가능하며, 30개의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 안개크기의 입자로 분사된 물방울들이 비산하는 먼지를 공중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 문의 : Allied 사업본부 황인성 사원 02)3498-4623 / 010-3322-1860

(요청시 작업 동영상 데모CD와 장비 소개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CONEXPO Asia 2006

CONEXPO(건설장비 국제 전시회)가 지난 5월 15일~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CONEXPO Asia 2006에는 Caterpillar를 비롯한 전세계 75개국 190여 개의 중장비 업체가 참여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약 13,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번 전시회에서 Caterpillar는 굴삭기, 굴절트럭, 모터그레이더, 포장장비, 스키드로더, 백호로더 및 각종 어태치먼트 등 30대 이상의 건설장비를 전시했으며 발전기, 렌탈스토어, CAT Financial(금융회사) 및 기념품 부스도 마련하였다. (주)헤인에서도 내방하는 한국 관람객들을 위해 행사진행요원을 파견하여 Caterpillar와 함께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진동롤러 CS-533E 전시회



(주)헤인은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영등포 경일 주차장에서 Caterpillar 진동롤러 CS-533E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전시한 New E-시리즈 진동롤러는 Caterpillar만의 특화된 편심무게추를 사용하여 고 진동시에도 드럼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기존 D-시리즈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높은 다짐력을 제공해 준다. 또한, 더욱 강화된 국제배기가스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엔진을 장착하였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뿔롤러를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어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Cold Milling Machine (노면파쇄기) Bit 판매 개시



(주)헤인의 Allied 장비사업본부에서는 세계적인 철삭공구 업체인 Kennametal사와 Dealership 계약을 체결하고 노면파쇄기(Cold Milling Machine)에 사용되는 철삭용 부품인 Drum, Holder, Bit, Scraper 등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소형파쇄기(철삭폭 30cm~80cm)부터 대형파쇄기(철삭폭 1m~2m)에 사용되는 모든 Bit는 장비의 성능 및 철삭되는 도로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제품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대형 노면파쇄기의 경우 모든 장비에 대해 우수한 품질의 Drum, Holder 및 Scraper등을 고객이 만족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 문의 : Allied parts & service team 박일규과장 (02-3498-4622)

(주)헤인 중고부품 서비스



(주)헤인은 고객의 장비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엄선된 중고 부품을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지원하고 있다. 헤인에서 취급하는 중고 부품은 캐터필라의 최신 공구를 사용하여 구성품 사양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이를 통해 엄선된 품질의 중고 부품만을 공급한다. 또한, 중고 부품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 소싱하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캐터필라 노후 장비를 보유한 고객에게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중고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한번 판매한 장비에 대해 장비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주요 취급 부품

엔진부품 (엔진, 실린더헤드, 블록, 캠 샤프트, 크랭크 샤프트, 등)

유압부품 (펌프, 모터, 등)

동력전달 계통 부품(밋선 부품, 화이날 부품 등)

◎ 문의 : 부품 및 서비스 마케팅팀 오성관 주임 (041-559-1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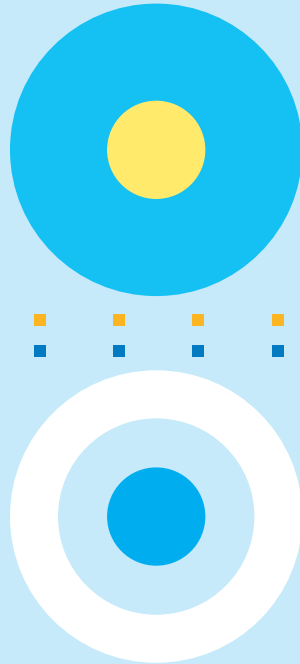
※ 헤인의 역사를 찾습니다

헤인과 관련된 사진자료, 신문기사 등을 찾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계신 소중한 자료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당사에서 확인 후 소정의 답례품과 함께 자료를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경영기획팀

가깝지만 먼 명품과 짝퉁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빠른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품'을 입고 들고 신는 것은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상징이 된다. 이처럼 명품에 열광하는 사회적 풍토 뒤에 짝퉁이 자리한다. 명품과 짝퉁, 그 불가분의 관계를 짚어본다.

글 / 박세은(패션칼럼니스트)



1%마케팅의 결과, 명품과 짝퉁

명품브랜드의 '1% 마케팅'은 상위 1%를 향해 나머지 99%가 뒤를 쫓는 사회현상을 유발하게 했다. 체면 때문에 명품을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편승효과(Bandwagon Effect)' 나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수록 비싼 물건이 더 잘 팔린다는 '베블린효과(Veblen Effect)' 같은 법칙에 휘둘리는 것도 바로 '명품'의 위력이다.

그 이면에 짝퉁 시장이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해외 명품 모조상품, 소위 짝퉁 시장 규모는 한 해 512조원. 전 세계 명품유통의 7%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내 명품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규모만 대략 8천500억원에 달해 국내의 짝퉁규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달해있다.

짝퉁 상품은 'SA(Special A) · A · B' 등으로 등급까지 매겨져 거래되고 있는데 특A급은 전문가도 진품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정품가격의 약 80% 정도에 거래되며 짝퉁도 장인의 수준으로 불릴 정도다. '본래의 자신보다 나아보이도록 꾸미게 되는' 패션의 특성상 짝퉁은 누구나 알아보고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명품을 소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고 싶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바로 쉽게 가질 수 없고 비싸다는 사실 때문에 이를 사서 쓰는 사람이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는 '후광효과(Halo Effect)'의 영향이다.

명품을 향한 애정과 반발

'짝퉁'의 유행이 명품에 대한 대중의 소유욕에서 시작됐다면 명품에 대한 반발도 유행의 한 가지로 인정받고 있다. 커다란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셔츠, 큼직한 디자인의 펜던트 링 귀고리 등 상류사회의 전통적이고 우아한 문화를 거부하고, '저급한 싸구려도 패션이 될 수 있다'고 뽀뿌이 드러내는 새로운 스타일을 차브(CHAV)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이미 2004년 최대의 유행 신조어로 옥스퍼드 대학사전에 오르기도 한 '차브'는 악취향의 패션을 즐기며 싸구려를 자처하는 청소년의 문화를 대변한다.

'차브'가 1960년대의 히피, 70년대의 펑크, 80년대의 힙합 등과 같이 지배계급의 주류문화에 저항하며 비꼬는 하위 청년문화의 한 형태라면 '프라브(PRAV)족'은 아예 브랜드를 중시하지 않는 '무명주의'를 택한다. 프라브는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을 뜻하는 신조어로 합리적 소비와 자신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실속파'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명품주의의 과시적인 성향이 없지 않다. 이들은 최신 유행과 값싼 가격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다. 명품일 것이라는 짐작으로 물어오는 "그 옷 멋있다. 어디서 샀니? 얼마 줬어?"라는 질문을 기다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제품과 가격대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과 자신의 구매감각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브족은 구찌, 버버리, 프라다, 샤넬 등 브랜드에 매몰돼 사치스레 꾸미는 명품족에 거부감인 동시에 싸구려 짝퉁을 추구하는 '차브'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명품 브랜드는 모두 다르고(Different), 나으며(Better), 특별하다(Special). '명품(名品)'이란 '이름난 물건'의 뜻도 있지만, '이름을 남길 만큼 가치 있는 물건'이란 뜻도 있다. 오랜 역사와 정신을 지닌 명품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이 짝퉁을 비롯해 명품을 향한 극적인 애정과 반발이 끝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독자 나눔터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주에서 정비 운전을 하는데, 소형급 캐터필라 굴삭기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주에서도 시승식을 가졌으면 참 좋겠네요.

경북 영주시 가흥 1동 1454-13 | 서영란 님

●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사보들, 너무너무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금번 307C 모델 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해인 화이팅!

경북 문경시 문경을 하리 123-8 | 강영신 님

● 안녕하십니까? 사보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이 2003년도에 실시한 Switchback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의 맥락이 아십니까? 저희는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하여 잊음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해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10 대창산업(주) | 박진형 님

● 봄의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따뜻하고 알찬 사보 잘 읽어보았습니다. 새싹, 씨앗, 이 모든 말들이 봄을 실감하게 하는군요. 2006년의 시작을 힘차게 여는 해인, 멋진 장비의 모습을 닮는 해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복632-1 주공빌라 503호 | 이상진 님

● 해인에서 중장비 관련된 제품만 판매하는 줄로 알았는데, 발전기 제품도 활발히 판매하며 주가도 많이 상승하였군요! 축하드리며, 더욱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충북 옥천 옥천 금구 199-2 나래중기(주) | 박찬필 님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문의 : 이승일 과장 (silee@haein.com) 02-3498-4524

Congratulations!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동해지점	사원	장건우
전주지점	사원	홍성구
해상엔진팀	사원	박성빈
북부영업소	주임	노주일

결혼을 축하합니다

기술서비스팀	과장	공정근
부산영업본부	사원	김동섭

입사를 축하합니다

경영기획팀	대리	김태용
대전지점	사원	조소연
부품관리팀	사원	이애리
부품및서비스마케팅팀	사원	이혜인
기술서비스팀	사원	김경민
발전에너지팀	사원	엄윤숙

지난호 그림맞히기 퀴즈 정답

7	4	5
2	1	3
8	6	9

2 0 0 6

S U M M E 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주)해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해인빌딩

애독자카드

●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에 맞게 재배열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빈 칸에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적어 주세요.

4 □ □

□ □ □

□ □ □



● 독자나눔터에 신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정성스러운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